

실업계 여고생의 가출영향변인들 및 가출유형 분석  
- 개인·가족·또래 및 학교 변인을 중심으로 -

Variables Influencing Vocational High School Girls' Runaway, and  
Runaway Types

- Focusing on Personal · Family · Peer and School Variables -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석사 권유娥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득성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

Master: Yoon a, Kwon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

Prof.: Deuk sung, Kim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relative contributions of personal · family · peer and school variables influencing runaway, particularly the first-time runaway and repeated one, and to classify runaway types. Runaway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peer delinquency, manic behavior, family dysfunction, school achievement, night school, depression, family type and abuse by family members. First-time runaway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peer delinquency, family type, depression, abuse by family members, night school. Repeated runaway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peer delinquency, family dysfunction, school achievement, manic behavior and night school. Three runaway types were classified. :「runaways from family crisis」, 「runaways dissatisfied with family」 and 「funseekers」.

## I. 서론

청소년 가출이란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집을 떠나서 적어도 24시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명에서 50만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이 수는 갑자기 급증하여 더욱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sup>1)</sup>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책 및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가출은 때로는 값진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신문과 방송을 통해 가출한 청소년이 범죄집단의 희생양이 되거나 범죄집단과 유해환경에 빠져들어 단독 혹은 집단으로 각종 사회범죄를 유발하고 성적 서비스업계에 까지 종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즉 가출은 제 2의 비행으로 연결되어 개인적인 타락은 물론 현 사회의 병리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가출은 반드시 예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예방은 미래의 청소년 비행까지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청소년 가출을 독립성·자율성 혹은 자아정체감을 추구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건강한 행동으로 결론내리기도 하나 대부분의 조사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가출에 대한 경험적인 선행연구들(안창규·문선화·전윤식, 199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Roberts, 1987; Janus, McCormack, Burgess & Hartman, 1987)에 따르면 가출은 정신적·성격적 결함, 가정 문제, 또래 문제, 학업 문제 등과 관련있고 단일 변인에 의해서라기보다 여러 변인들의 상호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그들의 가출 욕구와 동기는 차이가 있으며 그들이 처한 개인·가족·또래 및 학교 환경도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단 한가지 프로그램이나 접근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학자들은 가출청소년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개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유형 분류는 가출청소년 모두를 불량아, 문제아로 보는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가출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 주며 가출 원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잇점이 있다.

청소년 가출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고 단일변인과 가출과의 관계를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나열한 점이다. 따라서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드물었다. 둘째 가출의 횟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한 번 가출했던 청소년들과 만성적인 가출청소년들의 가출 원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같은 원인이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최초의 가출과 재가출의 독특한 원인을 밝히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출 유형의 분류 작업이 미진한 실정이다. 대부분 직관적·비경험적인 방법으로 분류하였고 가출의 다양한 원인들을 기준으로 분류한 예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히고, 둘째 첫가출과 재가출을 결정하는 변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고, 셋째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기준으로 가출청소년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가출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 가출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과 사후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시적으로 가출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입장에서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가족·또래 및 학교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산의 경우, 1995년 한 해의 중·고교 가출 학생수가 3,884명으로 1994년의 2,446명에서 59%나 치솟았으며(조선일보, 1996.11.21), 경기도에서는 중·고교 가출학생의 수가 전년에 비해 2배로 증가하였다(한국교원신문, 1997.10.15).

- 연구문제 1.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첫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재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가출청소년들은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 1) 개인적 변인

가출청소년들은 부적응적이고 병리적인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즉 이들은 비가출청소년들보다 적대감, 우울, 경조성, 불안, 심적 혼란 및 충동성이 더 높고,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안창규 등, 1995; 지창희, 1987; Roberts, 1987; 박상균, 1985; Englander, 1984; Reilly, 1978; Phillips, 1976)

#### 2) 가족 변인

##### ① 가족형태

가출은 가족구조의 와해에서 비롯될 수 있다. 가출청소년들은 비가출청소년들보다 결손가족이나 계부모가족에 속한다는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도수경, 1990; Roberts, 1987)가 있는 반면에 친부모나 계부모 또는 조부모의 동거여부가 가출과 큰 관련이 없다는 연구(안창규 등, 1995)도 있다.

##### ② 생활수준

가난에 대한 비판이나 증오로 가출할 수 있다. 최근 연구(안창규 등, 199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김혜래, 1985)에 따르면 빈곤가정의 가출율이 높고, 가출청소년들이 비가출청소년들에 비해 빈곤을 더

많이 느끼며, 가정수입이 낮을수록 가출가능성이 높았다.

##### ③ 학대

가출청소년들의 상당비율이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나 형제에 의한 학대를 가출이유로 보고하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Kurtz, Kurtz & Jarvis, 1991; Janus 등, 1987).<sup>2)</sup>

##### ④ 가족기능

가족체계의 역기능이 자녀의 가출을 유발시킬 수 있다. 가족들간의 갈등과 공격성,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공공연한 분노 표출, 애정표현과 자율성 부족, 성취(성적)에 대한 높은 기대 및 경직된 규칙 등이 가출과 관련이 있었다(정유미, 1997; 안창규 등, 199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Janus 등, 1987; Spillane-Greico, 1984; Blood & Angelo, 1974).

#### 3) 또래 변인

청소년의 상당수가 비행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 가출친구의 유혹으로, 좋아하는 이성친구와 함께 있기 위해 가출하였다(안창규 등, 1995; YMCA, 1991).

#### 4) 학교 변인

##### ① 학교생활불만

우리나라의 지식중심 교과과정과 주입식 교육방법은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하며 학교생활에 대해 흥미를 잃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수업에 대한 무의미감, 교사에 대한 불만이나 두려움, 교사의 체벌이나 공부에 대한 싫증이 가출로 이어질 수 있다(안창규 등, 1995; YMCA, 1991; 지창희, 1987).

##### ② 성적

낮은 성적 혹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 상실로 가출충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포기나 도피의 형태로 가출을 실행할 수 있다(YMCA, 1991).

2) 예를 들어, Janus 등(1987)은 가출청소년의 73.3%가 신체적학대를, 51%가 성적 학대를 받았고, 40%가 신체적 학대 때문에 가출하였다고 하였다.

## 2. 가출 횟수

가출원인에 대한 최근 연구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Sharlin & Mor-Barak, 1992)에 따르면 가출 횟수가 증가할수록 친구지향형, 외부세계지향형<sup>3)</sup> 가출이 증가하였다.

## 3. 청소년 가출의 유형

가출은 직관적·단일차원적 개념이 아니다(Rothman, 1991). 즉 가출청소년 개인마다 가출 원인, 과정, 결과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출의 개념만으로 가출을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학자들은 가출을 유형화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Homer(1973)는 가족문제로 집을 나온 「도피형」(running from)과 거리의 하위문화를 즐기려는 「외부세계지향형」(running to)으로, Green과 Esselstyn(1972)은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제멋대로인 가출자」(rootless runaway), 부모역할에 시달리는 「불안한 가출자」(anxious runaway) 및 아버지나 계부의 성적학대로부터 달아난 「겁에 질린 가출자」(terrified runaway)로 유형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용교(1991),<sup>4)</sup>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sup>5)</sup> 및 박부일(1994)<sup>6)</sup> 등이 가출유형을 분류하였다.

## Ⅲ.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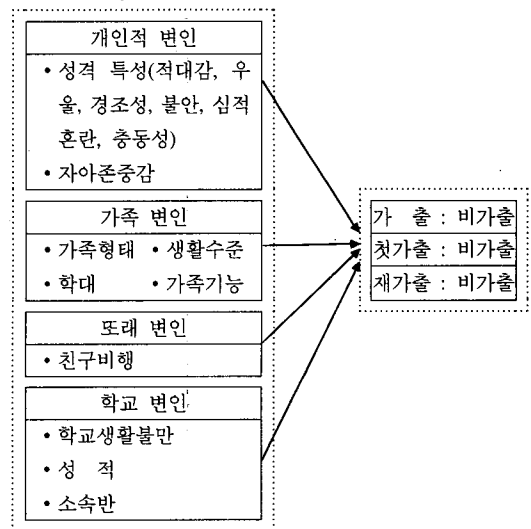
###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개인적 변인으로 적대감, 우

울, 경조성, 불안, 심적 혼란 및 충동성의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을, 가족 변인으로 가족형태, 생활수준, 학대 및 가족기능을, 또래 변인으로 친구비행, 학교 변인으로 학교생활불만, 성적 및 소속반(야간반/주간반)<sup>7)</sup>을 선정하였다. 종속변인은 가출 : 비가출, 첫가출 : 비가출, 재가출 : 비가출로 각각 이분화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부산시 소재 4개 실업계 여자고등학교의 주·야간 1, 2학년 학생들이다. 이들을 조사대상자로 선택한 이유는 부산의 가출율이 급증하고 있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실업계 고등

3) Homer(1973)의 용어로 집에서 금지하는 거리의 하위문화(예: 성, 마약, 술)를 즐기 위해·나가는 유형이다.

4) 단순탈출청소년, 단순가출청소년, 만성탈출청소년, 만성가출청소년

5) 결과에 따라 시위성·도피성·추출성 가출, 가출준비성격에 따라 충동적 성격과 계획적 성격의 가출, 가출횟수에 따라 일과성과 반복성 가출로 나누었다.

6) 개별 가출, 집단 가출, 혼성 가출, 집단혼성 가출, 줄줄이 가출, 재가출, 습관성 가출.

7) 주간반 학생들보다 야간반 학생들의 가출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통제하고자 독립변인에 포함시켰다.

8) 가출 횟수를 연속형 변인으로 처리하지 않고 첫가출과 재가출로 이분한 이유는 가출 횟수의 응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가출하며(YMCA, 1991), 특히 여학생의 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조선일보, 1996.11.21). 조사대상자 491명 중 124명(25.3%)은 가출집단,<sup>9)</sup> 367명(74.7%)은 비가출집단<sup>10)</sup>이었다. 가출 횟수의 범위는 1~25회로 평균 3.30회(표준편차 3.41)였다. 「첫가출집단」은 40명(32.3%), 「재가출집단」은 81명(65.6%)이었다.<sup>11)</sup>

###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91)

변인	구분	n	%
소속반	주간반	221	45.0
	야간반	270	55.0
연령	15세	59	12.0
	16세	208	42.4
	17세	197	40.0
	18세	27	5.5
가족형태	핵가족	361	73.5
	확대가족	66	13.4
	계부모가족	21	4.3
	편부모가족	43	8.7
생활수준	상	12	2.4
	중상	84	17.1
	중	325	66.2
	중하	64	13.0
	하	6	1.2

### 4. 측정 도구

#### 1) 성격 척도

적대감, 우울, 경조성, 불안 및 심적 혼란 척도는 안창규(1990)의 연구를 참고로, 충동성 척도는 이정

아(1995)의 연구를 참고로 구성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가출과 유의한 상관이 없거나 의미상 중복되는 문항들을 제외·수정하였고, 경조성 척도에 이정아(1995)의 권태민감성 척도의 한 문항<sup>12)</sup>을 포함시켰다.

각 성격 척도의 특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적대감은 공격적 적의, 분노, 보복에 관한 5문항이며, 우울은 무가치감, 삶에 대한 무의미, 운명에 대한 꾸념, 자살 경향에 관한 4문항이다. 경조성은 잠시라도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하고 떠돌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며 스릴, 자극, 흥분을 추구하려는 경향에 관한 6문항이며, 불안은 걱정, 외로움, 사람이나 일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에 관한 5문항이다. 심적 혼란은 정서적 갈등과 심리적 혼란에 관한 5문항이며, 충동성은 자기 감정과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결과나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즉시 행동하려는 정도에 관한 4문항이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아니다”(0점)에서 “항상 그렇다”(3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대감·우울·경조성·불안·심적 혼란 및 충동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신뢰도 계수는 적대감  $\alpha = .71$ , 우울  $\alpha = .84$ , 경조성  $\alpha = .72$ , 불안  $\alpha = .78$ , 심적 혼란  $\alpha = .80$ , 충동성  $\alpha = .72$ 였다.

#### 2)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 척도(안창규 등, 1995)에서 예비조사 결과 가출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문항들로만 재구성한 것으로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불만, 열등감 및 미움에 관한 5문항이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아니다”(0점)에서 “항상 그렇다”(3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을 나타낸다. 신뢰도 계수는  $\alpha = .87$ 이었다.

9) 가출집단 : 가출한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하의 실업계 여고생

첫가출집단 : 단 한 번 가출한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하의 실업계 여고생

재가출집단 : 두 번 이상 가출한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하의 실업계 여고생

10) 비가출집단 : 가출한 경험이 전혀 없는 만 18세 이하의 실업계 여고생

11) 나머지 3명(2.1%)은 이 질문에 무응답하였다.

12) “둔하고 지겨운 사람은 참을 수 없다.”

## 3) 학대 척도

학대 척도는 Straus(1979)의 갈등척략척도의 일부 문항을 변안·수정한 7문항으로, 앞 문항에서 뒷 문항으로 갈수록 위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없다"(0점)에서 "1주일에 1번 이상"(4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성원에 의한 정서적·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신뢰도 계수는  $\alpha = .83$ 이었다.

## 4) 가족기능 척도

가족기능 척도는 Beavers와 Hampson(1990)의 SFI II(Self-Report Family Inventory)를 수정·재구성한 것이다. 예비조사를 통해 SFI II의 지도력과 의사소통에 관한 문항들과 척도의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을 제외하여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매우 일치"(1점)에서 "매우 불일치"(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순기능적인 가족을 나타낸다. 신뢰도 계수는  $\alpha = .94$ 였다.

## 5) 친구비행 척도

친구비행 척도는 무단조퇴·무단결석, 근신·징계 처분, 가출, 폭력써클 가입, 이성과의 성경험·집단 혼숙, 자살기도 및 자해에 관한 7문항이다. 가출집단은 첫가출 이전의 친구비행에 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전혀 없다"(0점), "1명"(1점), "2명"(2점), "3-4명"(3점), "5명"(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친구가 많고 친구의 비행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신뢰도 계수는  $\alpha = .90$ 이었다.

## 6) 학교생활불만 척도

학교생활불만 척도는 학교생활보람, 수업의 괴로

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정도, 학교규율에 대한 불만, 교사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정도 및 교사의 인격 무시발언에 관한 6문항이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매우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신뢰도 계수는  $\alpha = .78$ 이었다.

## 5. 자료 수집

1996년 10월 14일에 부산시 실업계 여고생 2학년 4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1996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총 13학급의 수업시간에 본인과 교과담당교사가 배부·실시하였다. 또한 단기간에 많은 가출청소년들을 모으기 위해 문 제행동으로 징계 중인 학생들을 따로 모아 실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총 6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595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율이 낮은 104부를 제외한 491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상대적인 영향력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이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식 변인선택방법(Stepwise)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sup>13)</sup>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인들간의 다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자아 존중감·우울·불안이 .64~.80, 경조성과 충동성이

13) 종속변인이 명목변인이고, 독립변인들 중 하나 이상이 연속적인 수준에서 측정될 때 적합한 방법이다.

$$* \text{로지스틱 회귀모형 } I. \ln(P/1-P) = \alpha + \beta_1 X_1 + \dots + \beta_k X_k$$

$$II. P/1-P = \text{Exp}(\alpha) \cdot \text{Exp}(\beta_1 X_1) \cdot \dots \cdot \text{Exp}(\beta_k X_k)$$

( $\alpha$ :절편,  $\beta_1 \sim \beta_k$ :부분회귀계수,  $X_1 \sim X_k$ :독립변인, P:가출 확률)

이 모형의 회귀계수는 사상발생에 대한 Log odds(승산치의 자연대수)의 선형적인 증감을 나타내며 회귀분석의 회귀 계수처럼 해석할 수 있다. 즉 사상발생의 Log odds를 증가시킨 변인은 사상이 발생할 확률/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Morgan & Teachman, 1988).

.62의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 중 우울과 경조성만 선택하여, 총 12개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가출=0 : 비가출=1)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 때 소속반(주/야간반)과 가족형태(핵/확대/편부모/계부모 가족)는 가(dummy)변인으로 처리하였고 각각 주간반, 핵가족을 생략범주로 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가출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 단계식 변인선택 방법으로 -

선택된 변인	B <sup>a</sup>	Exp(B) <sup>b</sup>	β <sup>c</sup>
친구비행	1.47***	4.35	.74
경조성	0.89**	2.44	.27
가족기능	0.72**	2.05	.26
성적	0.36**	1.43	.21
소속반(야간반)	0.77**	2.16	.21
우울	0.55*	1.73	.20
가족형태(확대가족)	-1.02*	0.36	-.19
학대	0.52*	1.68	.19
상수	-7.58***		
x <sup>2</sup>		253.14***	
n		491	
concordant		92.1%	

\*p < .05 \*\*p<.01 \*\*\*p<.001

<sup>a</sup> 로지스틱 회귀계수      <sup>b</sup> 승산비율

<sup>c</sup> 표준화된 로지스틱 회귀계수

\* x<sup>2</sup>는 -2 Log Likelihood 감소량으로 제시하였다.

\* 가족기능 척도의 높은 점수 = 역기능적인 가족

\* 성적(1점~5점)의 높은 점수 = 나쁜 성적

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구비행(β=.74)이었으며, 다음으로 경조성, 가족기능, 성적, 소속반, 우울, 가족형태, 학대 순이었다. 이 변인들은 모두 서로 통제된 상태에서 가출을 유의하게 설명하

였다. 즉 가출은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경조성이 높을수록, 역기능적인 가족일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야간반 학생일 때, 우울할수록, 가족성원에 의한 정서적·신체적 학대가 심할수록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고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일 때 일어날 가능성이 낮았다. 한편 야간반 학생이 가출할 가능성은 주간반 학생이 가출할 가능성의 2.16[e<sup>0.77</sup>]배였다.<sup>14)</sup> 이상의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적대감, 심적 혼란, 생활수준과 학교생활불만이 가출을 최적으로 설명하는 축소모형에서 제외된 점이 선행연구결과들(안창규 등, 199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지창희, 1987; Reilly, 1978)과 달랐다. 그리고 핵가족과 편부모/계부모가족간의 가출가능성에서 유의한 차가 없었다는 점은 안창규 등(1995)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본 모형의 적합도는 x<sup>2</sup>가 253.14(df=8)로 매우 의미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 모형으로 관찰치를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Concordant)은 92.1%로 예측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첫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상대적인 영향력

첫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이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시 12개의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첫가출=0 : 비가출=1)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구비행(β=.44)이었으며, 다음으로 가족형태, 우울, 학대, 소속반 순이었다. 이 변인들은 모두 서로 통제된 상태에서 첫가출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즉 첫가출은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우울할수록, 가족성원에 의한 정서적·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심할수록, 야간반 학생일 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고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일 때 일어날 가능성이 낮았다. 본 모형의 적합도는 x<sup>2</sup>가 76.19(df=5)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concordant가 88.4%로 예측이 잘 되었다고 할 수

14)  $\frac{P}{1-P} = e^{-7.58} \cdot e^{0.77 \cdot X}$  [X(가변인) : 주간반 0, 야간반 1]

: 야간반의 가출에 대한 승산치(odds) = 주간반의 가출에 대한 승산치(e<sup>-7.58</sup>) × 2.16

〈표 3〉 첫가출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 단계식 변인선택방법으로 -

선택된 변인	B	Exp(B)	$\beta$
친구비행	1.18***	3.25	.44
가족형태(확대가족)	-2.21*	0.11	-.42
우울	1.21***	3.35	.41
학대	0.83***	2.29	.28
소속반(야간반)	0.99*	2.69	.27
상수	-5.35***		
$\chi^2$	76.19***		
n	407		
concordant	88.4%		

\*p < .05 \*\*p < .01 \*\*\*p < .001

있다.

### 3. 재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상대적인 영향력

재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이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12개의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재가출=0 : 비가출=1)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재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구비행 ( $\beta = .86$ )이었으며, 다음으로 가족기능, 성적, 경조성, 소속반 순이었다. 이 변인들은 모두 서로 통제된 상태에서 재가출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즉 재가출은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역기능적인 가족일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경조성이 높을수록, 야간반 학생일 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본 모형의 적합도는  $\chi^2$ 가 217.56 ( $df=5$ )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concordant가 93.9%로 예측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 첫가출과 재가출의 로지스틱 회귀모형 비교

〈표 3〉과 〈표 4〉를 비교해보면, 첫째 성격 변인과 가족 변인의 경우, 첫가출은 우울, 학대 및 가족형태

〈표 4〉 재가출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 단계식 변인선택방법으로 -

선택된 변인	B	Exp(B)	$\beta$
친구비행	1.72***	5.59	.86
가족기능	1.14***	3.13	.42
성적	0.64***	1.90	.38
경조성	0.99***	2.69	.30
소속반(야간반)	0.89*	2.44	.24
상수	-9.90***		
$\chi^2$	217.56***		
n	448		
concordant	93.9%		

\*p < .05 \*\*p < .01 \*\*\*p < .001

와 관련있었고 재가출은 경조성, 가족기능과 관련있었다. 둘째 또래 변인인 친구비행은 첫가출과 재가출 모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친구비행의 Exp(B)값을 서로 비교해 보았을 때 친구비행이 1단위씩 높아질 때마다 첫가출의 경우 3.25씩, 재가출의 경우 5.59씩 가출가능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친구비행은 첫가출보다 재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학교 변인의 경우, 소속반은 첫가출과 재가출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성적은 재가출과 관련이 있었다.

### 5. 가출유형 분류

본 연구결과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우울, 경조성, 학대, 가족기능, 친구비행, 성적 변인에<sup>15)</sup> 따라 가출집단을 군집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출집단이 3개의 유형으로 묶여졌다. 이 가출집단 유형들과 비가출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Scheffé 추후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그림 2〉와 같다.

분석 결과, 집단간에 우울, 경조성, 학대, 가족기능, 친구비행, 성적에서 유의한 평균차가 있었다. 이



〈표 5〉 세 가출유형과 비가출집단의 우울, 경조성, 학대, 가족기능, 친구비행, 성적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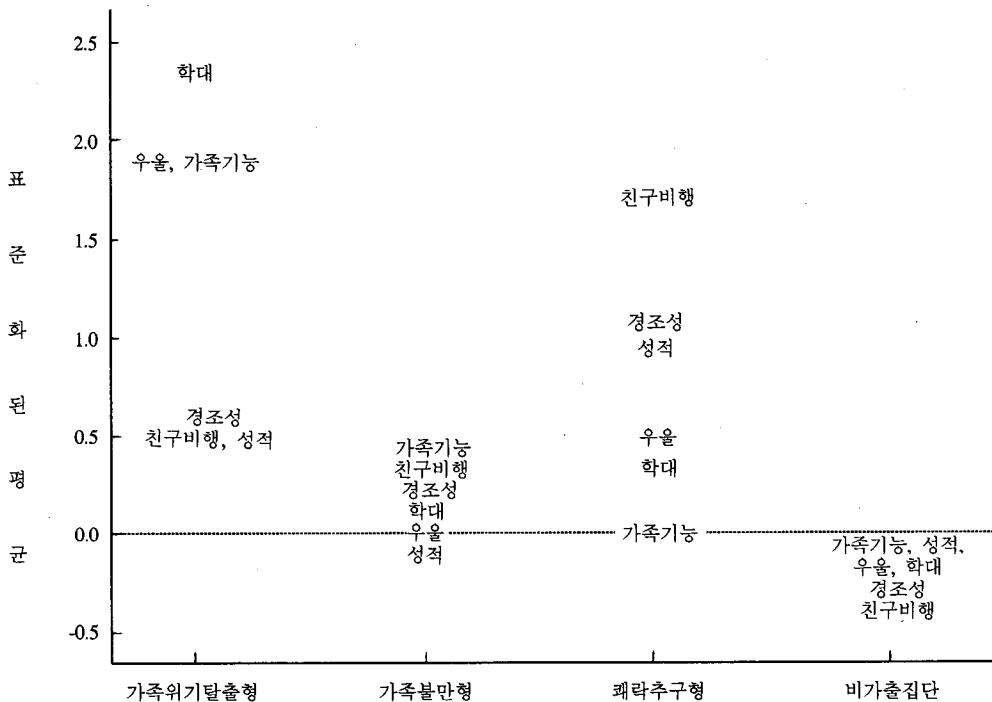
(N=491)

집단구분 \ 변인		n (명)	우울	경조성	학대	가족기능	친구비행	성적
가출 집단	가족위기탈출형 (18.5%)	23	2.25 a	1.20 ab	2.16 a	3.83 a	1.15 b	3.57 ab
	가족불만형 (33.9%)	42	0.98 bc	0.98 bc	0.62 bc	2.74 b	0.90 b	2.93 bc
	쾌락추구형 (47.6%)	59	1.30 b	1.49 a	0.83 b	2.57 bc	2.24 a	3.95 a
비가출집단		367	0.86 c	0.73 c	0.45 c	2.45 c	0.35 c	2.81 c
F 값			46.1*	45.5*	74.1*	38.6*	142.3*	24.2*

\*p < .0001

\* a>b>c 순의 평균크기로, 집단간 유의한 평균차가 있으면 다른 문자로, 유의한 평균차가 없으면 같은 문자로 표시하였다.

〈그림 2〉 세 가출유형과 비가출집단의 우울, 경조성, 학대, 가족기능, 친구비행, 성적의 표준화된 평균<sup>15)</sup>



15) 범주형 변인인 소속반과 가족형태는 제외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가출유형별 특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위기탈출형

가족위기탈출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족성원으로 부터 가장 심각한 학대를 받고 있다. 이들의 우울 정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이들의 가족들은 비교적 역기능적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역기능적인 가족내의 학대로부터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 가출집단의 18.5%가 이 유형에 속했다.

2) 가족불만형

〈그림 2〉를 살펴보면, 이 유형의 각 변인들의 점수가 평균선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유형은 특별히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의 가출 이유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비가출집단보다 유의하게 가족이 역기능적이고 친구비행의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혹은 부모의 관심을 끌어 소정의 목표를 이루려고 혹은 친구들과 놀다보니 본의 아니게 가출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가출집단의 33.9%가 이 유형에 속했다.

3) 쾌락추구형

쾌락추구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비행친구와 경조성의 정도가 가장 높고 성적은 가장 낮다. 그러나 가족기능은 비가출집단과 유의한 차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들은 「가족위기탈출형」과 대조적으로 가족문제보다는 비행친구와 높은 경조성 때문에 가출하며 비행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극과 쾌락을 즐기는 부류일 것으로 보인다. 가출집단

의 47.6%가 이 유형에 속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가출 특히 첫가출과 재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가출유형을 규명함으로써 청소년 가출의 예방과 대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출은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경조성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가족일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야간반 학생일 때, 우울할수록, 가족성원의 학대가 심할수록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고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일 때 일어날 가능성이 낮았다.
- 2) 첫가출은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우울할수록, 가족성원의 학대가 심할수록, 야간반 학생일 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고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일 때 일어날 가능성이 낮았다.
- 3) 재가출은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역기능적 가족일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경조성이 높을수록, 야간반 학생일 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 4) 가출집단은 가족성원의 학대 혹은 가족역기능으로부터 탈출한 「가족위기탈출형」(18.5%), 심각한 문제가 없는 「가족불만형」(33.9%) 및 비행친구들과 어울리며 모험과 쾌락을 즐기는 「쾌락추구형」(47.6%)으로 분류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친구비행은 가출, 첫가출, 재가출 모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영향력은 첫가출보다 재가출일 때 더 컸다. 또한 가출집단의 가장 많은 비

16) 우울, 경조성, 학대, 가족기능, 친구비행, 성적의 표준화된 평균

집단구분 \ 변인	우울	경조성	학대	가족기능	친구비행	성적
가족위기탈출형	1.89	0.60	2.37	1.89	0.53	0.53
가족불만형	-0.01	0.20	0.04	0.27	0.26	-0.06
쾌락추구형	0.46	1.13	0.37	0.01	1.73	0.89
비가출집단	-0.19	-0.24	-0.21	-0.15	-0.34	-0.17

울을 차지한 유형은 친구비행점수가 가장 높았던 「패락추구형」이었다. 이는 1994년에서 1996년까지 불량교우관계로 인한 가출이 전체 가출청소년의 54.6%로 가장 많다는 보도 내용(부산일보, 1996.12.11)과 일치한다. 따라서 가출 특히 재가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은 친구의 비행성향이며 오늘날에는 비행친구로 인한 가출이 가장 빈번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첫가출과 재가출의 원인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첫가출은 우울, 가족형태, 학대의 영향을, 재가출은 경조성, 가족기능, 성적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최초의 가출은 우울한 심리상태에서 가족성원에 의한 학대를 피하기 위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가출은 모험과 쾌락을 즐기려는 경조성과 가족역기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즉 첫가출은 도피적인 성격이, 재가출은 외부세계지향적인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이 가출시 집밖에서 각종 유흥문화에 동화·적용되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가족역기능이 재가출과 관련있는 것도 첫가출 후 외부의 유해환경속에서 경조성이 강화되어 이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가족역기능이 매우 따분하고 참기 힘들게 되어 재가출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외부세계지향형 가출청소년은 충동적이고 내적 통제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욕망이 강한 반면 도피형 가출청소년은 외적 통제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어 운명과 외부요인에 의해 통제받는다 고 느끼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절망과 무기력감을 보이며, 또 가출횟수가 증가할수록 외부세계지향형 가출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Sharlin 등, 1992)을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첫가출은 학대와 같은 디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무기력감과 선택부족감("집에 있으면 해롭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가출했다.")으로, 재가출은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이 하고 싶어서 가출했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본 연구결과 가출청소년들은 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이들 유형들에 적절한 사회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가족위기탈출형」의 경우, 무조건 귀가조치하는 것은 무익하다. 왜냐하면 가출의 핵심적인 원인이 가족내에 있기 때문에 가출이 되풀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 이들을 가정밖의 위탁시설에서 일정 기간동안 보호·교육·치료하는 동시에 그 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및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패락추구형」의 경우에는 이들의 만족을 지연시키고 모험심과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탈출구를 사회에서 수용되는 방법으로 찾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뚜렷한 가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가족불만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핵가족과 편부모/계부모가족간의 가출가능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오늘날 핵가족의 기능약화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가출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은 확대가족에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존재하여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적대감, 심적 혼란, 생활수준 및 학교생활불만은 가출의 최적모형에서 제외되어 선행연구결과들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분석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은 가출관련변인들을 찾기 위해 빈도분석이나 교차분석에만 의존하여 왔다. 이 때문에 다른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이 변인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변인들이 개별적으로는 가출유무와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변인들을 통제 한 상태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을 부산의 실업계여고생들로 제한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청소년 전체에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성별, 학년, 학교 계열의 청소년들과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표본수가 적어서 첫가출과 재가출을 비교하지 못

했다. 셋째 버려지거나 쫓겨난 경우와 자발적으로 가출한 경우를 구분하지 못했다. 따라서 가출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개념 정의에 근거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출에 대한 개인·가족·또래 및 학교 변인들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및 비인과 효과 등을 밝히기 위한 경로 분석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김혜래(1985). 청소년의 가출행동에 있어서 스트레스의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수경(1990). 가출경험소녀와 비가출경험소녀간의 가족관계 연구 - Circumplex Model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부일(1994). 청소년 가출의 시작과 끝. 한국청소년선도회.
- 박상균(1985). 인간관계훈련이 가출성향여중생의 성격특성변화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YMCA청소년상담실(1991). 청소년 가출에 대한 설문조사보고서.
- 안창규(1990). 잠재적 비행청소년의 조기진단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성곡논총 21.
- 안창규·문선화·전윤식(1995). 가출청소년과 학교관리체제. 집문당.
- 이용교(1991).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대책 모색. 가출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다. 서울YMCA청소년상담실 심포지엄 자료.
- 이정아(1995). 청소년의 인성특성과 가정환경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유미(1997).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창희(1987). 중학생의 가출요인 및 성격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eavers, W.R. & Hampson, R.B.(1990). *Successful families :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Y. : W.W. Norton.
- Blood, L. & D'Angelo, R.(1974). A progress report on values issues in conflict between runaway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486-491.
- Englander, S.W.(1984). Some self-reported correlates of runaway behavior in adolescent fema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484-485.
- Green, N.B. & Esselstyn, T.C.(1972). The beyond-control girl. *Juvenile of Justice* 23, 13-19.
- Homer, L.E.(1973). Community-based resource for runaway girls. *Social Casework* 54, 473-479.
- Janus, M., McCormack, A., Burgess, A. & Hartman, C.(1987). *Adolescent runaways : causes and consequences*. Lexington, MA. : Lexington Books.
- Kurtz, P.D., Kurtz, G.L. & Jarvis, S.(1991). Problems of maltreated runaway youth. *Adolescence* 26, 543-554.
- Morgan, S.P. & Teachman, J.D.(1988). Logistic regression : description, examples, and comparis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929-936.
- Phillips, S.B.(1976). The runaway girl : a differentiating profile of personality, family, school, and social factor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9, 394-B.
- Reilly, P.P.(1978). What makes adolescent girls flee from their home?. *Clinical Pediatrics* 17, 886-893.
- Roberts, A.R.(1987). *Runaways and non-runaways*. Chicago : The Dorsey Press.
- Rothman, J.(1991). *Runaway and homeless youth*. The center for Child and Family Policy Studies, School of Social Welfare. CA. : University of Calif.
- Sharlin, S.A. & Mor-Barak, M.(1992). Runaway girls

in distress motivation, background, and personality. *Adolescence* 27, 387-405.

Spillane-Greico, E.(1984). Characteristics of a helpful relationships : A study of empathic understanding and positive regard between runaways and

their parents. *Adolescence* 19, 63-75.

Straus, M.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 75-88.